

불법 만나 “내안의 감옥 문” 활짝

삼우 스님이 미국에서 발행하는 불교잡지 <스프링 윈드> 여름호는 '교도소'를 특집으로 다뤘다. 교도소포교를 하는 미국 불자들이와 교도소 수감 중 불교를 배우게 된 불자들이

불교잡지 스프링윈드
미 교도소 포교 특집

의 짧고 담담한 신행담 여섯 편은 소외된 계층에 대한 포교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이 가운데 데이비드 셰인과 코창 틱씨의 기고문 두 편을 요약, 소개한다.

인디애나 주립교도소에서

첫 접한 가르침 씩스럽고 얼떨떨

내달 수계, 소내 '상가' 공동체 생겨

나는 스물다섯 되던 1994년 살인 공범죄로 60년이라는 형을 선고받고 인디애나 주립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여기 들어온 지 5년 후 한 친구를 만났다. 그 친구는 불교 신자였고, 불교의 역사와 교리, 교도소에서 어떻게 불교 수행을 하는지 가르쳐 주었다. 나는 점점 더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됐고, 묵요일마다 하는 참선 모임에도 들어가게 됐다. 교도소의 참선 모임을 이끈 사람은 관음 전 센터(화계사 조실 승산 스님이 미국에 세운 단체)에서 온 린 키드와 우담바라 전 센터의 트리

사 티터 두 사람이었다. 요즘 나는 매일 내 감방에 앉아서 참선을 하고, 반야심경을 외운다. 어떤 때 스트레스가 오거나 긴장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신기할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제 불교수행을 한지 삼 년이 됐다. 올 7월에는 계를 받으려고 한다. 나 외에도 여섯 사람이 계를 받는다. 그 분들과 인디애나 교도소에 상가(sanga) 공동체를 이뤄 우리가 불교인으로 점점 커지고 서로에게서 배우고 싶다. 데이비드 셰인

아버지의 교도소 체험

면벽참선은 세상 바라보는 방법

감옥 내 다르마 네트워크에 참가

나의 큰 아들 노아는 폭행, 차 부딪음, 폭력, 가짜 마약거래 등 몇몇 중범죄를 저질렀고 지금 뉴햄프셔 주 남부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아들을 면회하는 첫 순간부터 나도 함께 투옥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욕망, 집착, 탐욕 등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나를 투옥하는 벽들이다. 그러나 불교적 체험은 나 자신의 감옥의 문을 열어 놓았다. 참선을 하다 보면 내 안의 장삼이 제거되었고, 벽을 바라보는 것(참선)은 곧 세

상을 바라보는 방법이 되었다. 아들이 있는 교도소를 방문한 동안 나는 그곳에도 역시 부처님이 역시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이러한 깨달음은 죄수들에게 참선하는 법과 스트레스와 화를 통제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하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졌다. 나는 감옥 안의 '다르마 네트워크'에 참가했고, 함께 참여한 죄수들 역시 교도소 안에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창 틱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사형제도 폐지 입법화 촉구

강법무, “범종교인연합 주장 대통령에 보고”



◀사형제도폐지 범종교인연합 실무대표 김형태 변호사(사진 맨오른쪽)가 강금실 법무장관에게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특별법 입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범종교인연합(공동대표 진관 스님 등 7명, 이하 범종교인연합)은 6월 25일 오전 정무처장 법무장관 집무실에서 강금실 장관을 만나 사형제도폐지 특별법 입법화, 단계적 조치로서 종신제도

입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강 법무장관은 이와 관련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조만간에 노대통령을 직접 만나 범종교인연합이 제출한 성명서와 주요활동

사항 등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면담은 진관 스님(조계종 사형폐지위원회장), 문장식 목사(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대표회장), 이명신 교무(원불교 문화사회부장), 주선원 교화관장(천도교) 등 9명이 참석했다. 김철우 기자

김태복장군 기소 군검찰 직권남용혐의 고소당해

김태복 장군을 기소한 군 검찰 고 모 소령이 '직권남용'과 '모해위증교사' 혐의로 고소당했다. 김태복 장군은 6월 24일 서울 지방 검찰청에 접수한 고소장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도 없이 다시 기소 ▲돈을 준 사람이 없는 뇌물 사건으로 조작 ▲허위 진술 강요 등을 근거로 고 모 소령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또 고 모 소령이 ▲강 모 중령에게 허위증언 강요 ▲법당 재무장교 협박 등을 저질렀다며 모해위증교사 혐의도 고소했다. 한편 김태복장군 명예회복 불교대책위원회는 6월 23일부터 약 2주간 국방부 앞에서 군사법원장 박 모 대령 구속수사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남동우 기자

“SK시주금 ‘대가성’ 없었다”

이 전공정위장 2차심리...10일 선고공판

검찰이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승가사 시주 외압 혐의와 관련,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강요죄'를 추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병준)는 6월 26일 2차 심리를 열고 검찰측이 증인으로 요청한 김석호(38, 전 공정위 기업결합과장) 씨에 대해, 2002년 5월 SK가 이남기 씨에 의해 외압 당한 상태였는지 SK텔레콤의 KT지분 인수와 관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하지만 검찰이 신청한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대가성 유무에 대한 김 씨의 결정적인 증언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증인 김 씨를 통해 “김창권 전 SK구조조정본부장은 SK 문제발생 2달 뒤라며 “공정위는 문제가 된 SK의 KT지분 1.79% 매각처분과 관련해 공정위는 이미 내부 방침이 결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SK가 시주를 하지 않았어도 불리한 조치

는 없었을 것”이라고 확인해 이 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 진술에서 이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강요죄에 대해 “검찰이 사용한 ‘강제’, ‘압박’ 등의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또 “승가사 시주금은 불자인 내가 SK측에 권유해 자발적으로 시주한 것”이며 “공정위의 공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10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철우 기자



13년만에 빛 본 사진집

아아! 장엄...불교 2500년

1991년 고 이기영 박사(전 동국대 교수)의 추천으로 발간된 '아아, 장엄-불교2500년(요코야마 소이치로 저, 아카데미하우스 간행)'이 13년 만에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한 창고의 주인으로부터 "13년간 보관돼 있는 불교서적을 폐기하려고 한다. 그동안 밀린 창고비만 지불하고 찾아가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은 김재일 회장

12개국 불교성지 등 실어 2500권에 이르는 '아아, 장엄-불교 2500년' 사진집을 찾아왔다. 사진집에는 인도 스리랑카 미얀마 등 12개국 소개 및 불교성지 생활상이 수록돼 있다. 부록에는 '인도불교의 흥망과 흐름 속에서'이라는 해설과 '불교전래의 길' 지도도 들어있다. 1991년 당시 정가는 28,000원. 동산반야회는 6,000원에 보급한다. 문의 02) 732-1206 김원우기자

돈 때문에 울고 웃어서야



권형진 (취재1부 기자)



최근 보조사상연구원을 두고 작은 소동이 있었다. 연구실장 인경 스님이 자리를 내놓는다는 소문이 잠시 떠돌았다. 연구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10년 넘게 비어있는 연구원장을 모셔오고, 상임 연구원이나 재정 확충 등의 문제를 하루빨리 풀어야 되지 않느냐는 스님의 뜻이 와전된 것이었다. '해포님'으로 끝났지만, 사찰 설립 연구소(원)의 속살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그 여운은 길었다. 보조사상연구원은 보조지불 사

상 연구의 한 전환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월례 발표회 형식의 연구와 토론의 장을 처음 도입해 불교학 연구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송광사나 법원사의 재정 지원이 끊긴 상태에서 한두 사람의 원력만으로 운영되던 연구소가 이만큼의 성과를 올린 것이다. 사찰이나 문중에서 설립하거나 운영되는 연구소(원)는 대략 10곳 정도이지만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몇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사찰 소임자가 바뀌면 재정 지

원이 끊기기 일쑤고, 개인이 주머니를 털어 근근이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 재정확보가 어렵다 보니 건설하던 연구소도 '주먹구구식'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부가 세계 불교화계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데는 각 종파에서 설립한 불교 연구소가 큰 힘이 됐다고 한다. 누가 소임을 맡아도 연구소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는 것이 곧 한국 불교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자비를 실천하는 나눔의 개인 콜렉시입니다. 수익금의 일부는 불우 이웃과 장애 복지 단체에 쓰여집니다. 수도권 미터요금 은행 지역 인천국제공항 일산, 김포, 부천,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수지, 구성, 하남, 의정부, 남양주 일부 서울 운불련 나눔 콜렉시 1588-5532

'노대통령 특검반대' 지지 실천불교 전국승가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는 6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 연장 반대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실천승가회는 성명서에서 '대북 송금'에 관한 일체의 정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남동우 기자

禪으로 이끄는 스승의 간곡한 편지

도도는 말이 없으나 말이 아니면 도가 드러나지 않으며, 마음은 모양이 없으나 모양을 통하지 않으면 마음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말이 곧 도이며, 모양이 곧 마음이다.

「서장書狀」은 「대혜서大慧書」, 「대혜서문大慧書問」 등으로도 불리는 책으로 대혜종교(1089-1163) 스님이 문하의 거사와 유학자들의 질문에 답하여 선禪의 요지를 설명한 편지글을 모은 것이다.

임제종 양파기에 속하는 중국 남송 시대의 스님인 대혜종교는 목조선 默照禪을 배격하고 간화선을 제창하였기 때문에, 간화선의 전통을 이은 한국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간화선을 재고하고자하는 목소리가높은 요즘이야말로 간화선의 교과서로 불리는 「서장」 공부법을 통하여 선의 본질에 대해 철저히 파고 들어가야 할 것이다.

선을 공부하는 지침서로서 「서장」의 장편

- 조사선과 간화선의 본질을 잘 밝히고 있다.
- 조사선이나 간화선이나 하는 말은 시대적인 의미가 부여된 명칭일 뿐이고, 요컨대 선이란 곧 깨달음을 본질로 한다. 「서장」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깨달음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체험되는가라는 주제에 대한 다양한 각도에서의 설명이다. 이 점에서 「서장」은 종교를 초월하여 깨달음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해 준다.
- 선 공부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답한 선 공부의 지침서이다. 서장에 실린 대혜종교의 편지글은 모두 선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작성된 것들이다. 답변의 상대는 주로 거사들이지만 승려와 여성도 있어서 다양한 공부인들을 대상으로 선문禪門으로 들어가는 올바른 길을 가르치고 있다.
- 공부에 관한 지도가 매우 구체적이고 친절하다. 공부의 지침서로서 「서장」의 무엇보다 큰 장점은 그 가르침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는 것이다. 가르침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대혜의 안목眼目이 그만큼 깊고 정확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 율지 않은 견해와 잘못된 공부의 여러 사례를 열거하여 그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동시에 올바른 견해와 공부의 길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책에서는 「서장」에 실린 62편의 편지 가운데 50편을 선정하여 각 편지에서 파악된 주요한 가르침들을 주제로 삼아, 그 내용을 더욱 알기 쉽고 상세하게 강의하고 있다.